『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21권 1호(2015년 6월) 65-90

『플러쉬』, 어느 뛰어난 개의 전기*

손 현 주

I. 버지니아 울프의 『플러쉬』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플러쉬』(*Flush,* 1933)는 빅토리아 시대의 저명한 여류시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의 애완견 플러쉬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최근까지 비평가와 독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1931년 봄 『파도』를 완성한 후 울프는 "책을 쓰면서 이토록 머리를 쥐어짠 적이 없었다"라고 적고 있다. 기진했던 울프는 다음에 쓸 작품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가벼운 모험"같은 것을 구상했다(*D4* 8). 마침 머리를 식힐 겸 브라우닝의 서간집을 읽고 있던 울프는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애견 플러쉬의 일대기를 쓰기로 마음먹는다. 울프는 당시 오토라인 모렐(Ottoline Morrell)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 『플러쉬』는 그저 장난일 뿐이에요. 『파도』(*The Waves*) 이후 너무 지쳐서 정원에 누워 브라우닝의 연애편지를 읽고 있었는데, 그들의 개가 너무 우스워서 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기를 써주기 않을 수 없었어요. (*L5* 161-62)

이렇게 탄생한『플러쉬』는 출판 육 개월 만에 19,000부가 팔리면서 울프 작품 중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의 북클럽에서는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D4* 175). 하지만 울프는『플러쉬』의 성공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대중들에게 단지 "매력적이고" "섬세한" 이야기를 쓰는 "여성스러운"(ladylike) 작가의 이미지로 고정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D4* 181). 그리고 바로 이 같은 대중적 인기는 이후『플러쉬』가 비평적 가치가 없는 작품으로 치부되는데 일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울프의 소설, 전기, 평론, 에세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울프의 일기나 편지만큼도 독자와 평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거의 아무도 읽지 않는 작품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하지만『플러쉬』는 최근 들어 울프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크레이그 스미스(Craig Smith)는 이 작품을 "빅토리아 영국에서 여성의 종속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었고(Smith 349), 진 두비노(Jeanne Dubino)는 울프가 보여주는 다위니즘과 스파니엘 종에 대한 폭넓은 지식에 주목했다. 쥬터 이트너(Jutta Ittner)는 울프가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하려 시도하는 모습을 읽어냈고, 댄 와일리(Dan Wylie)는 인간과 개 사이의 언어 장벽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제이미 존슨(Jamie Johnson)은 울프가 인간이 아닌 개를 주체로 삼아 개가 경험하는 세계를 개의 감각과 의식을 통해 재구성하려 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등, 주로 생태비평(ecocriticism)과 탈인간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플러쉬』를 울프의 전기문학론과 그 실험의 일환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플러쉬』의 원제는 *Flush: a Biography*로『올란도』(*Orlando: a Biography*, 1928)에 이어 울프가 "전기"라는 제목을 붙여 펴낸 두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기라는 부제에 걸맞게 전통적인 전기의 형식에 따라 플러쉬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전체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플러쉬는 런던 근교의 전원에서 태어나 메리 밋포드(Mary Mitford)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런던의 윔폴가(Wimpole Street)에서 바렛 브라우닝을 만나 세상을 경험하고, 이후 이탈리아로 이주해 마침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스파니엘"다운 생을 살다가 숨을 거둔다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구성되어 있다. 첫 장은 전기적 사실들의 근거를 제시하고,

날자, 주석 등의 전통적인 전기문학의 장르적 특징을 동원하여 독자들에게 이 글이 전기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플러쉬의 각 성장 단계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특징적 사건들이 핵심을 이룬다. 가장 특기할 점은 이 작품이 사람이 아닌 개의 전기이기 때문에 사건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주체의 관점과 경험치가 인간의 것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전기 장르가 각광을 받고 꽃피었던 빅토리아 조의 전기문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울프는 사람이 아닌 개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른바 의사전기(mock-biography)를 통해 기존 전기문학의 장르적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준다.

II. 울프와 전기문학

전기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을 글로 담아내어 표준화된 전범으로 제시하고 여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는 18세기 계몽주의와 공리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전 세계를 경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간의 양산이 필요했고, 전기문학의 확산과 장려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의 삶을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축적하듯 대규모로 집적하려는 시도도 생겨났다. 울프의 아버지인 레슬리 스티븐경(Sir Leslie Stephen)이 20여 년을 몸바친 대규모 국가적 사업, 『국민인명사전』(*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DNB*))[1]의 편찬사업이 그것이다. *DNB*는 1885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레슬리 스티븐은 1882년에서 1891년까지 거의 9년간 초대 편집자로 일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편집장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그는 인명사전에 많은 인물들의 전기항목을 집필하는 일을 계속했다. 1882년에 태어난 울프가 보낸 유년기는 부친의 인명사전 편집 집필 작업과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타고난 독서가로서 동시에 부친의 영향으로 누구보다 많은 전기와 자서전 문학을 읽고 자란 울프는 빅토리아 조 전기문학에 대해 깊은 이해와 더불어 날카로운 비평적 안목을 지니게 되었다. 소설에 있어 다양하고 혁신적 형식을 실험을 했

1) *DNB*는 1900년에 63권으로 초판이 출간되었고, 이후 20세기 전반에 걸쳐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04년에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로 인터넷 판이 함께 출간되었다.

던 울프는 「새로운 전기」(“New Biography,” 1927))와 「전기문학예술」(“Art of Biography,” 1939) 등의 에세이를 통해 새로운 전기문학의 장을 열고자 시도했다. 소설과 전기문학은 서로 분리된 장르이지만 울프에게 있어 인간의 삶의 진실을 담아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울프는 전기문학의 목적이 “진솔한 인물의 전달”(truthful transmission of personality)에 있다고 보았다(*CE4* 229).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몸담은 시대와 사회는 인간의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각기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빅토리아 시대를 벗어나 현대사회로 전이되는 길목에서 태어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폭력과 파괴를 직접 겪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도시 자본주의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한 울프 세대에게 지난 시대의 세계관과 인생관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에세이 「현재 세대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가」(“How it strike the contemporary”(1923))에서 울프는 예술적 표현에 있어 자신이 속한 세대, 즉 현대 작가들이 고민하고 고전하는 이유는 이전 세대가 공유했던 “믿음”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한다.

> 우리는 이전세대와 깨끗이 단절되었다. [. . .] 가치관의 일대 변동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삶의 결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들을 과거부터 단절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지나치리만큼 현재를 의식하게 만들었다. (*CE2* 157)

> 우리의 동시대인들은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 [. . .] 그들은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 타인들에게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토리를 말하지 않는다. 스토리들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반화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각과 감정에 의존한다. 그런 식으로 확인한 것이 애매모호한 지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믿을만하기 때문이다. (*CE2* 159)

이와 같은 인식은 19세기말 런던에 태어나 20세기 전반을 살았던 울프가 몸으로 체험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이, 대량복제 예술매체의 탄생,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파편화된 개인,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의 문명에 대한 불안, 프로이트로 대변되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믿음과 합의의 상실 등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울프가 경험하는 현실(reality)은 전 시대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었고, 그것을 전달하는 표현 양식 또한 변화가

요청되었다. 아놀드 베넷이 울프를 비롯한 당대의 젊은 작가들이 “인물창조”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울프는 베넷으로 대표되는 빅토리아 조 에드워드조 작가들의 전통적인 인물묘사가 오히려 비현실적이라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두 계열의 작가들, 즉 아놀드 베넷이 속한 세대의 작가들과 울프가 속한 세대의 작가들이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 있다. 울프는 그 차이가 작가와 독자,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부재에서 온다고 지적한다. 베넷의 글쓰기는 통합되고 안정된 세계인식을 담보로 하고 있는 반면,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1차 세계대전의 대량살육과 파괴를 경험한 고립되고 파편화된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를 새로이 모색해야 시점에서 당시 젊은 작가들은 더 이상 기성세대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손현주 120-21).

해롤드 니콜슨(Harold Nicolson)이나 리튼 스트레치(Lytton Strachey)처럼 기존의 전기문학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전기물을 시도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변화의 저변에는 현실을 인식하는 틀 자체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일생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교육받고 누구와 결혼하고, 이러저러한 업적을 세우고, 어떻게 말년을 보냈다고 하는 식의 연대기적 사실에 기반한 내러티브로 전달된다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보다 그 같은 검증이 불가능한 내적인 경험들이 모여 삶의 경험을 구축한다고 보고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 사회에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통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전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작가들이 당연시했던 공동의 가치와 전통이라는 버팀목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고립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타자에게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들 현대 작가들의 고민과 실험이 시작된다.

III. 『플러쉬』, 어느 뛰어난 빅토리아 조의 개, 플러쉬의 전기

새로운 전기문학을 추구했던 울프는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문학에서도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데, 특히 전기 문학의 형태를 빌어 쓴 소설 『올란도』와 『플러쉬』에서 울프의 장르적 실험이 두드러진다. 『올란도』가 남성으로 태어나 여

성으로 변신하며 400여년을 살아가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여성작가의 탄생을 그려냈다면, 『플러쉬』는 사람이 아닌 개의 생애를 통해 전기문학의 장르적 범주와 기법을 실험하는 획기적인 시도이다.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애견 플러쉬는 족보있는 코커 스파니엘 순종견이다. 울프도 핑카(Pinka)라는 코커 스파니엘을 키우고 있었는데, 울프의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비타 섹빌 웨스트(Vita Sackville-West)로부터 온 선물이었다. 플러쉬 역시, 병약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실에 칩거해 지냈던 바렛 부라우닝에게 친구인 밋포드 양(Miss Mitford)이 보낸 선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란도』에서 전기문학의 장르적 관습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험을 했던 울프는 이번에는 브라우닝의 개의 전기를 통해 전기문학 형식에 대해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이 작품은 또한 플러쉬의 생애를 통해 빅토리아조의 대표적 여류시인인 브라우닝의 삶을 간접적으로 조명해 보려는 시도이자 동시에 리튼 스트레치의 대표작인 『뛰어난 빅토리아조 인물들』(*Eminent Victorians,* 1918)에 대한 패러디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뛰어난 빅토리아조 인물들』에서 스트레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비롯한 4명의 걸출한 인물의 일생을 짧고 가벼운 문체로 다루어 전통적 빅토리아조 전기와는 사뭇 다른 형태의 전기를 내놓았다. 예전 같으면 각 인물에 관해 두꺼운 한 권의 책이 쓰이고, 그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한편, 인간적 약점이나 오점이 될 만한 사실들은 덮거나 생략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스트레치는 빅토리아조의 거창한 위인들을 좀 더 지상의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네 사람을 하나의 작은 책자에 담는 불경스런 일을 저질렀다. 울프는 전기문학 장르의 획기적 위업으로 평가되는 스트레치의 『뛰어난 빅토리아조 인물들』에 대한 패러디로 "뛰어난 빅토리아조의 개, 플러쉬"의 일대기를 쓰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플러쉬』가 미처 완성되기 전 1932년에 스트레치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Hussey 89).

『플러쉬』는 울프의 작품세계에서 한동안 잊혀진 존재였지만, 최근 들어 새로이 비평적 관심을 받고 있다. 고급문학과 대중문학의 구별을 지양하고 예술과 문학을 일상성과 연관시켜 바라보는 포스트모던적인 관조시각도 한 몫을 했겠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비인간적인 존재(non-human beings)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탈인간주의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텍스트로 부상하고 있다. 『플러쉬』는 또한 전기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한서도 새로운 관점을 마련해 준다. 저명하

고 귀감이 되는 영웅이나 위인의 일대기를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기존의 전기문학에 대해 울프는 "이름없는 사람들의 삶"(lives of the obscure)도 전기로 쓰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아닌 개의 생애를 전기로 담아내려는 시도를 한다. 과연 개의 일생도 전기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닌 개의 눈으로 본 세상, 그리고 그 개의 생애를 담은 전기는 기존 전기문학의 규범들의 한계와 인위성을 인식하게 만든다. 즉, 훌륭한 삶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기가 조명해야 하는 의미있는 사건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냐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가치와 기준에 대해 재고하게 만든다. 리튼 스트레치가 전통적 전기문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뛰어난 빅토리아조 인물들』을 썼다면, 울프는 이제 뛰어난 빅토리아조의 개 플러쉬의 전기를 통해 인간중심주의적 문명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올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울프는 『플러쉬』에서도 삶의 진실을 글로 담아내려는 자신의 모더니즘적 글쓰기 실험을 계속한다. 사실(fact)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전기문학의 전통적 장르 규범을 벗어나 소설에서 연마한 모더니즘적인 내러티브 테크닉, 즉 인물의 내적 의식의 묘사를 전기쓰기에 접목시켰다. 인간이 아닌 플러쉬의 의식과 플러쉬와의 관계를 통해 바렛 브라우닝의 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울프는 플러쉬의 감각에 의존한다. 울프의 글쓰기가 많은 부분 시각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플러쉬』에서 울프는 의식적으로 개의 후각에 집중한다. 플러쉬에게 멋진 경치나 아름다운 음악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 반면 냄새는 그의 세계의 핵심이며 경험의 중추이다.

> 인간의 코는 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도 한 편에서는 장미를 다른 한 편에서는 똥 냄새를 맡을 뿐이다. 그 둘 사이에 놓인 무수한 층위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플러쉬는 거의 대부분 냄새의 세계에 살았다. 사랑은 주로 냄새였다. 형상과 색체도 냄새였다. 음악과 건축, 법률, 정치, 과학도 냄새였다. 그에게는 종교자체가 냄새였다. 그가 매일 먹는 고기와 비스킷이라는 가장 단순한 경험을 묘사하는 것조차 우리의 능력 밖이다. (124)

쓰리마일 크로스(Three Miles Cross)를 떠나 런던의 윔폴가에 있는 바렛 저택에 도착한 플러쉬에게 새로운 세계가 냄새로 다가온다. 냄새가 얼마나 강렬하고 효과적인 감각인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 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맡는 냄새에 더 놀랐다. 덩어리째 굽는 고기, 양념 바른 닭고기 구이와 스프를 끓이는 따듯한 냄새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키린해폭의(Kerenhappock's) 싸구려 감자튀김과 저민 고기요리의 보잘 것 없는 맛에 길들여진 코에 마치 음식들을 직접 가져다 대는 것처럼 황홀했다. 음식 냄새와 섞여 더 많은 냄새들이 났다. 삼나무와 백단향과 마호가니 향, 남자하인과 여자 하인들, 코트와 바지, 크리놀린 치마와 망토, 테피스트리 커튼과 플러시천 커튼, 석탄 먼지와 연기, 와인과 시가 등의 냄새였다. 식당, 거실, 도서실, 침실 등 지나는 방마다 나름의 냄새를 풍겨 전반적인 냄새의 도가니에 합류했다. (19)

울프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변을 후각적 경험으로 다시 재구성하여 시각적인 구성에 익숙한 독자에게 인간이 아닌 개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든다. 흔히 집의 규모나 장식, 빛과 색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움 대신 우리는 플러쉬의 감각을 통해 냄새로 분류되고 판별하는 낯선 세계로 들어간다. 평소 길들여진 인간중심의 인식과정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플러쉬』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탐색일 뿐 아니라, 울프가 천착해 온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의 범위를 "사람들"을 조차 넘어서는 너른 지평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기존의 전기문학이 위대한 인물의 생애를 기리는 장르였다면, 울프는 병약한 여류 시인과 하녀, 나아가 개의 삶까지 전기적 내러티브의 소재로 삼아, 기존의 전통적 전기문학의 틀을 전복시키고, "생애 저술"(life-writing)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한다. 이러한 점에서 『플러쉬』는 울프가 관심을 기울여 온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Lives of the Obscure)를 인간이 아닌 존재(nonhuman being)에 까지 확대시킨 일종의 메타전기적 텍스트로 볼 수 있다.

IV. 『플러쉬』와 「새로운 전기문학」

울프는 「새로운 전기문학」에서 빅토리아조의 구태의연한 전기문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기문학의 가능성을 리튼 스트레치의 『뛰어난 빅토리아조 인물들』과 해롤드 니콜슨의 『어떤 사람들』(*Some People*, 1927)에서 찾았다. 빅토리

아조 전기문학의 특징이 실제보다 과장된 덕성스러운 인물을 장황하게 그려낸 반면, 리튼 스트레치는 인간적 약점을 가진 좀 더 실제와 비슷한 인물들을 간결하고 때론 아이러니한 필치로 묘사하여 전혀 새로운 느낌의 전기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니콜슨의 경우 전기적 사실과 소설적인 장치들을 적절히 결합시켜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는데 성공했다. 인물 성격의 핵심을 "목소리의 음조나, 고갯짓, 가볍게 흘리는 몇 마디 말이나 일화들"을 통해 간결히 드러내어 빅토리아조 전기에서라면 하나의 장(chapter) 전부를 할애했을 내용을 한 단락의 뛰어난 묘사로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CE4* 232). 그것은 "사실과 함께 버무린 약간의 허구는 인물의 특성(personality)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233). 하지만 울프는 전기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를 섞어 놓은 것은 실제로 전기도 소설도 아닌 잡종을 만들어 낸다고 우려한다.

> 상상력은 두 명의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전기작가가 그의 온갖 재간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의 진실과 허구의 진실은 함께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 둘을 결합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욱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은 허구적인 삶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인물(personality)에 있다. (*CE4* 234)

울프는 전기에서 사실과 허구를 섞는 것을 경계했지만, 『플러쉬』는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전기적 사실에 작가적 상상력과 소설적 기법을 실험하며 전기문학과 소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지평을 연다.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에 대한 에세이 「오로라 레이」("Aurora Leigh," 1931)에서 울프는 이제 아무도 그녀의 작품을 읽지 않지만 사람들은 브라우닝 부부의 열정적 사랑과 비밀결혼과 이탈리아로의 도피 등 그들의 로맨스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CE1* 209). 울프가 쓴 『플러쉬』는 바로 그 연애 사건과 그들 부부의 이탈리아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바렛 브라우닝의 애견의 생애를 소설적 기법을 동원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플러쉬의 이야기를 통해 마치 그림자 연극처럼 간접적으로 바렛 브라우닝의 삶을 엿보게 된다. 이 작품에서 울프는 니콜슨이 『어떤 사람들』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니콜슨이 허구를 버무린 "전기"를 쓰려했던 반면에, 울프는 "사실"을 버무린 허구, 즉 소설을 썼다.

울프는『플러쉬』에 “전기”라는 부제를 붙여놓고 전기와 소설의 경계지대에 위치시킨다. 그리고는 니콜슨에 대해 전기문학에 사실과 허구를 섞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자신의 주장을 살짝 비켜가며 전기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플러쉬의 삶은 바렛 브라우닝의 삶과 긴밀하게 얽혀있다. 런던의 상류층 주거지인 윔폴가의 저택 뒤켠에 위치한 어둡고 답답한 바렛 브라우닝의 침실에서 시작하여, 그녀가 로버트 브라우닝을 만나 비밀리에 결혼하고 정착하게 되는 햇빛 찬란한 이탈리아의 피사와 플로렌스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플러쉬의 삶은 바렛 브라우닝의 생애와 맞물려 펼쳐진다. 그러한 이유로『플러쉬』는 바렛 브라우닝의 생을 애견의 시점에서 서술해 본 실험적 작품으로 읽는 것도 일정 부분 타당해 보인다.

울프는 제인 오스틴(Jane Austen) 풍으로 작품의 첫머리를 장식한다.

> 이 회고록의 주인공이 가장 유서 깊은 집안(종)의 후손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러므로 그 이름 자체의 연원이 잊혀져버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1)

서사시에서 영웅의 혈통과 기원을 찾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울프는 스파니엘의 연원을 찾아 태고적 창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스페인이라 불리는 고장이 생겨나고, 시간이 흘러 식물이 자라나고, 자연법칙에 따라 토끼가 등장한다. 토끼가 있는 곳엔 으레 너무도 당연하게 토끼 사냥용 개가 창조되었다는 식이다.

> 수백만 년 전 현재 스페인이라 불리는 고장은 창조의 도가니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식물이 자라났다. 자연의 법칙은 식물이 있는 곳엔 토끼가 있으라 명했다. 신의 섭리에 따라 토끼가 있는 곳에는 개가 생겨났다. (1)

이렇게 해서 등장한 토끼 전문 사냥개가 왜 언제부터 스파니엘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 막연한 기원을 추적하며 카르타고 말(Carthaginian)로 토끼(span)라는 의미의 span에서 토끼사냥개라는 뜻의 스파니엘이라는 이름이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의사 영웅시(mock-heroic)적인 과장된 문체로 플러쉬의 종족적 기원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기능한다. 첫째는 플러쉬가 선천적으로 얼마

나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뛰어난" 개인인가를 천명하고, 둘째로는, 스페인 땅에서 카타지니안 병사들이 "스팬, 스팬" 하고 외치는 광경은 스파니엘 종의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여 플러쉬의 무의식의 바탕을 이룬다. 이 장면은 그가 인간과 도시 속에서 야성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할 때마다 다시금 그를 본연의 모습으로 이끄는 내면의 소리로 작용한다. 울프는 토끼와 수풀, 개와 병사들로 구성된 낭만적 장면을 기원으로 하여 이후 스파니엘이 어떻게 영국에서 귀족과 왕족이 애호하는 최상급 애완견이 되었는가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인 플러쉬의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모든 연구자들이 플러쉬가 태어난 달이나 날짜는 말할 것도 없고 정확한 탄생 연도를 확정하는데도 실패했다. 하지만 아마도 1842년 초반쯤에 태어난 것 같다. (9-10)

울프는 의도적으로 성장소설(Bildungsroman)의 형식을 차용해 플러쉬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마치 인간의 전기처럼 "태생에 대한 서술, 사회화 과정, 멘토의 영향, 성공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여성들, 그리고 소명의 문제" 등 성장소설의 기본틀에 따라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Castle 4). 플러쉬의 탄생과 바렛 브라우닝을 만나게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단계인 "태생에 대한 서술"에 해당한다. 순종 코커스파니엘의 가장 값진 신체적 특징을 모두 타고난 플러쉬는 쓰리마일 크로스에서 태어나 전원에서 유년기를 보낸 이후, 밋포드 양에 의해 병석에 누워있던 바렛 브라우닝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레딩 근처의 마을 쓰리마일 크로스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플러쉬에게 런던 거리와 윔폴가의 바렛 저택은 모든 것이 낯설고 제한된 장소이다.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 도달한 바렛양(브라우닝과 결혼하기 전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성)의 침실은 낯선 냄새로 가득 찬 새로운 장소이다. 시각보다 후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플러쉬에게, 커튼을 통해 희미한 빛이 비쳐드는 병자의 침실은 마치 폐허 속에 매몰된 납골당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묘사된다.

> 처음에 플러쉬는 희미한 녹색 어스름 속에서 공중에서 신비롭게 빛을 발하는 다섯 개의 하얀 구체 외에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또다시 그를

> 압도한 것은 방안의 냄새였다. 오직 폐허가 된 도시의 매몰된 납골당 속을 탐색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각만이 윔폴가의 병자의 침실에 처음 들어선 플러쉬의 신경에 쏟아져 들어온 감정의 파도에 비견될 수 있다. (20)

이 어두운 무덤같은 곳에 플러쉬를 남겨둔 채 밋포드 양은 떠나고 문이 닫힌다. “밋포드 양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코앞에서 하나씩 문이 닫혔다. 들판으로 가는 문, 토끼들에게 이르는 문, 풀밭으로 가는 문, 그리고 그가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여주인에게로 가는 문이”(22). 밋포드 양이 떠남과 동시에 플러쉬에게는 유년기의 문이 닫힌다. 이제 이곳 윔폴가에서 플러쉬는 성장소설의 두 번째 단계인 “사회화와 교육 과정”을 맞게 된다.

플러쉬의 사회화와 교육은 실상 도시문명에의 적응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플러쉬는 우선 바렛 양과 돈독한 유대를 형성한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닮은 점을 발견하고 급격히 가까워진다.

> 굽이치는 곱슬머리가 바렛 양의 얼굴 양쪽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크고 반짝이는 눈이 빛나고, 큰 입이 미소지었다. 묵직한 귀가 플러쉬의 얼굴 양 옆에 드리워져 있고, 그의 눈 역시 크고 반짝였다. 입도 컸다. 그들 사이엔 닮은 점이 있었다. (23)

플러쉬의 등장으로 삶의 활력을 얻은 바렛 양은 플러쉬를 대동하고 산책과 쇼핑을 위해 런던 거리로 나선다. 이런 도심 나들이는 플러쉬에게 뿐만 나이라 바렛 양에게도 “커다란 모험”(25)이었다. 무엇보다 런던 생활에서 플러쉬가 배워야했던 것은 본능을 통제하고 규율과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집 밖에 나가면 그는 “끈에 묶이는 것”을 용납해야 했다. “개들은 끈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 도심 공원의 규칙이었고, “끈으로 보호”(protection of the chain) 받아야하기 때문이었다(29).

> 그는 점차로 보호용 개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몇 번 산책을 하다보니 새로운 인식이 그의 두뇌에 새겨졌다. 다른 건 젖혀두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꽃밭이 있는 곳에는 아스팔트 길이 있고, 꽃밭과 아스팔트 길이 있는 곳에는 반들거리는 실크햇을 쓴 남자들이 있다. 그리고 꽃밭과 아스팔트 길과 반들거리는 실크햇을 쓴 남자들이 있는 곳에선 개들은 끈에 묶여야 한다. 입구에 걸린 푯말의 단어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레전트 파크에서

> 개들은 끈에 묶여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29)

런던 생활에서 플러쉬가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개들이 동등하지 않고 다르다는 것"이었다(30). 쓰리마일 크로스에서 그는 아무하고나 어울렸었다. 하지만 "런던의 개들은 . . . 엄격하게 서로 다른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다"(30).

> 어떤 개들을 묶여 있었고, 어떤 개들은 마구 뛰어다녔다. 어떤 개들은 마차를 타고 외출하고 보라색 유리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지만, 다른 개들은 흐트러진 모습에 목줄도 없고 하수구에서 먹이를 주워 먹었다. 플러쉬는 그러므로 개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떤 개는 지위가 높고, 다른 개들은 미천하다. [. . .] (30)

그리고 플러쉬는 자신이 개들 가운데 가장 상류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즉, 그는 "혈통 좋은 개"였던 것이다(31). 바람이 불고 추워지자 플러쉬는 바렛 양과 함께 대부분 집안에 머물며, 소위 "침실 학교"에서 자신의 개로서의 본능을 억누르고 조용히 여주인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비록 때때로 "스팬, 스팬"하고 외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퍼지고 사냥개로서 타고난 본능이 자신을 다그치는 것을 느끼곤 했지만, 바렛 양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를 통제했다(36). 바렛 양과의 관계는 성장소설의 청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사회화되고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성숙하는 과정이다.

바렛 양과 더불어 경험하는 도시 런던은 다양한 낯선 냄새들로 플러쉬의 감각을 자극한다. "중국에서 온, 아라비아에서 온 백만 가지 냄새들이 섬세한 향로에서 풍겨 나와 그의 감각의 가장 말단 부위를 자극했다"(28). 바렛 양이 런던 거리를 탐험하며 물건을 사는 동안, 플러쉬는 냄새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런던의 냄새는 향료와 향내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바렛 양과 같은 중산층 젠트리 계급들이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도시의 어둡고 부패한 측면을 플러쉬는 냄새를 통해 감지한다.

> 난생 처음 런던 거리 전체가 더운 여름날 그의 후각을 엄습해 왔다. 그는 기절할 듯한 하수도 냄새를 맡았다. 철제난간을 부식시키는 씁쓸한 냄새,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섞인 어지러운 냄새, 레딩근처에서는 맡아본 어떤 냄새보다 더 복잡하고 부패한, 너무나 다르고 격한 냄새들. 인간 후각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냄새들이었다. (28)

대도시 런던의 부패와 어둠은 개도둑들에게 플러쉬가 납치당하는 사건을 통해 현실화되어 나타난다. 주인의 쇼핑 길에 따라나선 플러쉬는 상점을 나서 마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마차 아래 숨어있던 개도둑들에게 납치당한다.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세계 최대의 부를 축적한 화려한 대도시 런던의 빛에 가려진 열악한 슬럼가의 실태가 소개된다. 화이트채플(Whitechapel)은 런던의 악명 높은 슬럼지역으로 당시 바렛 브라우닝이 살던 고급 주택가인 윔폴가와 거의 붙어 있다시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였다. 화이트채플은 전설적인 연쇄 살인마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가 출몰했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범죄와 매춘, 질병과 가난이 만연한 지역이었다. 당시 상류층 애완견을 훔쳐서 몸값을 받고 돌려주는 범죄가 성행했다. 한 번 몸값을 지불하고 돌려받은 개는 십중팔구 또다시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되곤 했는데, 실제로 플러쉬는 세 번이나 도난당했었다고 한다.

플러쉬 도난 사건을 통해 울프는 당시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사회상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대도시의 빈민가와 범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들 사이에서조차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고, 마음껏 뛰놀던 시골의 자연과는 달리 도심의 공원에서 개들은 항상 끈으로 묶여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점잖은 상류사회 개의 표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도둑들에게 잡혀 끌려간 화이트채플 지역의 어느 지하 방에서 플러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 마호가니 가구와 카핏이 깔린 윔폴가의 풍요와 대비되어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에 썩은 고기조각이 나뒹굴고, 플러쉬를 위해 준비되는 “보라색 유리그릇”에 담긴 차갑고 신선한 물 대신 “탁한 초록빛 도는 물”을 생존을 위해 마셔야 했다(78). 도둑 소굴에 오가는 사람들은 그의 눈에 “끔찍한 괴물들”로 보였다(79). 반면 도난당한 플러쉬를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바렛 양 또한 생전 처음 런던의 빈민가를 경험한다. “침실 아래 소를 키우고” 사는 그런 세계에 처음 발을 딛게 된 것이다. 윔폴가의 뒤편에 이같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플러쉬를 구하겠다는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는 바렛 양 또한 삶에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울프는 바렛 브라우닝이 후일 이 경험을 그의 대표작『오로라 레이』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92).

울프는 플러쉬와 바렛 양의 친밀함을 신화 속 님프와 팬(Pan)에 비유한다.

> 그건 플러쉬였을까, 아니면 팬이었을가? 그녀는 더 이상 윔폴가의 병자가 아니고, 아카디아의 어느 어스름한 수풀 속 그리스 신화 속 님프였을까? 그리고 수염 난 신이 직접 자신의 입술로 그녀의 입술을 덮쳤을까? 한 순간 그녀는 변모했다. 그녀는 님프였고 플러쉬는 팬이었다. 태양은 작열하고 사랑은 불탔다. (38)

가부장제와 도시문명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집안에 갇혀 "새장 속의 새"와 같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바렛 양과 플러쉬 사이엔 깊은 유대가 생겨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은 날로 돈독해져 갔다. "그녀는 플러쉬를 사랑했고, 플러쉬는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46). 그러던 어느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등장하면서 저택의 뒤편 침실에 칩거해 지내던 조용하고 단조로운 바렛 양과 플러쉬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다. 울프는 이 사건을 플러쉬의 입장에서 마치 미스테리 스릴러의 한 장면처럼 묘사한다. "1845년 1월 초 어느 날 밤부터 시작되어 매일 밤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고, 또 매일 밤 바렛 양은 그 편지에 답을 보낸다. 편지에 의해 야기되는 바렛 양의 내면의 변화와 흥분을 플러쉬는 자신을 "꽉 움켜 쥐는 손가락"의 긴장감에서 읽어낸다"(49). 그들의 삶에 드리워지는 브라우닝의 그림자는 플러쉬에게는 "두건을 쓴" "한밤의 불길한 인물"의 형태로 다가온다(52). 그의 등장에 바렛 양은 플러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54) 더 이상 플러쉬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55). 브라우닝은 플러쉬에게서 바렛 양을 빼앗아 간 것이다.

마침내 플러쉬는 브라우닝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6월 8일 그는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브라우닝 씨를 향시 몸을 날려 그를 마구 물었다"고 울프는 적고 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이 일이 사실(fact)임을 강조한다. 이 일로 플러쉬는 바렛 양의 노여움을 샀다. 바렛 양은 이제 다시는 "그(플러쉬)를 사랑하지 않겠노라" 선언한다(61). 플러쉬의 고뇌는 때론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연상시키는 과장되고 장중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파괴인가, 재건인가? 그것이 문제로다"(66-67). 고뇌의 끝에서 마침내, 플러쉬는 브라우닝 씨를 용납하기로 한다. 바렛 양에 대한 그의 사랑이 적조차 친구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었다.

플러쉬가 자신의 주인인 바렛 양과 로버트 브라우닝의 만남과 관계를 언어가 아닌 순수한 청각적 감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흥미롭다. 브라우닝은 정기적으로

일 주일에 두 세 번씩 오후 두시 반에서 네 시 반까지 윔폴가를 방문했다.

> 그 남자가 있는 동안은 잠자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플러쉬는 눈을 크게 뜨고 누워서 귀 기울였다. 비록 두 시 반에서 네 시 반까지 그의 머리 위로 오가는 가벼운 말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말의 어조가 변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바렛 양의 목소리는 처음엔 가식적이고 부자연스럽게 쾌활했다. 이제 거기엔 따스함과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남자가 올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새로운 소리들이 더해졌다. 그들은 때론 기괴한 소리로 떠들었고, 그 소리들은 때론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새처럼 플러시 위를 스쳐갔다. 어떤 때는 마치 둥지에 깃든 두 마리 새처럼 속삭이고 혀를 찼다. 그리고 나서 바렛 양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배회했다. 그러면 브라우닝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짖고, 거친 웃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나서는 단지 웅얼거리고 두 목소리가 합쳐져 조용한 콧노래를 불렀다. (57-58)

울프는 플러쉬의 감각을 통해 바렛 브라우닝의 의식세계에 접근하고 독자들에게 인간의 의식을 가늠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독자들은 플러시의 청각을 통해 두 연인이 친밀하지고 나아가 비밀리에 결혼하고 이탈리아로 도망가기까지의 추이를 감지하고, 바렛 양의 내밀한 감정을 알아채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금지된 사랑의 도피를 모의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깃든 “다급함”과 “간곡함,” “떨림” 등을 통해 그들의 내적 갈등이 플러쉬에게 감지되고, 플러쉬의 감각을 통해 독자는 그들의 상황과 감정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58).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울프는 기존 전기문학이 삶을 묘사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인위적인 것이고 단지 익숙해진 관습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각적 장면 묘사가 후각과 청각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플러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준다.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플러쉬의 전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추측이나 간접적 설명을 통해 압축되어 있다. 플러쉬와 바렛 양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인 브라우닝과의 결혼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장갑을 벗었고 한 순간 그(플러쉬)는 그녀의 왼 손가락 하나에 금반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98)는 것으로 간결하게 처리된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바렛씨의 분노를 피해 신혼부부는 플러쉬를 대동하고 런던을

떠나 이탈리아로 간다. 긴 여정도 플러쉬의 관점에서 배와 기차의 흔들림과 개가 갇혀 있어야 하는 박스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처리된다(102).

플러쉬가 받은 이탈리아의 첫 인상은 빛과 자유였다.

> 어둠이 열렸다. 빛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고, 깨어있음을 느꼈고, 햇볕이 가득한 넓고 휑한 방의 붉은색 타일 위에 얼떨떨한 채 서있었다. 그는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냄새 맡고 만져보았다. 카펫도 벽난로도 없었다. 소파도, 팔걸이의자도, 책장도, 흉상도 없었다. 자극이 강한 낯선 냄새가 그의 콧구멍을 간질여 재채기가 났다. 너무나 강하고 맑은 빛에 눈이 부셨다. (103)

플러쉬에게 있어 런던과 이탈리아 피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들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곳의 개들 사이엔 "계급이 없었다"(105). 순종견의 특징이나, 특급 스파니엘을 판별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애견 클럽"(Kennel Club)이나 "스파니엘 클럽"(Spaniel Club) 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듯이 보였다(105). 런던에 거주하는 동안 플러쉬는 자신을 "귀족견"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았었다. 하지만 이곳 이탈리아에서 그는 그 같은 "속물" 의식을 벗어 버리는 것을 배워야 했다. "그는 매일 매일 점점 민주적이 되어 갔다"(110). 이제 플러쉬는 성장과정에서 또 하나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달라진 것은 플러쉬만이 아니었다. 바렛 양도 이제는 브라우닝 부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런던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제, 예를 들면, 포트와인을 아주 조금 홀짝거리며 두통을 호소하는 대신에 큼지막한 잔에 끼얀띠(이탈리아산 포도주)를 쭉 들이켜고 푹 잘 자게 되었다. [. . .] 사륜마차를 타고 덜컹거리며 옥스퍼드가를 따라 내려가는 대신에, 그들은 필마가 끄는 낡아빠진 임대마차를 타고 삐걱거리며 호수가로 달려가서 높은 산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피곤할 때면 합승 마차를 부르는 대신, 바위에 앉아 도마뱀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햇살 속에서 기뻐했고 추위 속에서 기뻐했다. (108)

바렛 브라우닝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지배와 영국사회의 엄격한 규율과 계급의식에서 벗어나 "이탈리아에서 자유와 삶과 태양이 빚어내는 즐거움"을 만끽한다(109). 그리고 플로렌스에서 그들의 자유와 성장이 정점에 이른다. "개끈과 애견

클럽과 스파니엘 클럽, 그리고 화이트채플의 개도둑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플러쉬는 "달리고 또 달렸다. 털이 휘날리고, 눈에 불길이 일었다. 그는 온 세상의 친구가 되었다. 모든 개들은 그의 형제였다"(111). 그리고 플러쉬와 바렛 브라우닝은 그 둘이 함께 만들었던 세계에서 벗어나 각자 새로운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녀는 포도밭과 올리브 숲에서 스스로 팬(Pan)을 찾았다"(111). 그리고 "플러쉬는 이제 독립했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주인이었다"(113).

플러쉬는 비로소 성장의 정점에 이르러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게 된다. 그가 깨달은 소명은 "사랑"이었다. "순수한 사랑, 단순한 사랑, 온전한 사랑, 아무것도 꺼릴 것 없는 사랑, 부끄러움도 없고, 회한도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114). 울프는 숨 막히는 런던을 벗어나 햇살 가득한 플로렌스에 이 전기적 소설의 정점을 마련해 두었다. 바렛 브라우닝과 플러쉬 모두 자유와 사랑, 가식없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삶과 세계와 진솔하게 만나게 되는 이곳은 "모든 것이 그 자체이며, 다른 것이 아닌" 그런 이상적 장소로 그려진다(115). 그리고 울프는 또 다시 플러쉬의 이야기를 빌어 빅토리아조 풍의 전기문학적 관습에 대해 비판한다.

> 그렇지만 비록 플러쉬의 중년 후반기의 삶이 형언할 수 없는 쾌락의 향연이었다고 전하는 것이 전기 작가로서는 기쁜 일이겠지만 [. . .]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플러쉬는 전혀 그 같은 낙원에 산 것이 아니었다. (127)

이탈리아의 자유 속에서 플러쉬는 벼룩에 시달려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할 수 없이 스파니엘의 자랑이자 표상인 털을 모두 깎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플러쉬가 지금껏 지녀온 삶의 모든 기득권과 편견과 자랑, 이 모두를 내려놓고 벌거벗은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 나는 이제 누구인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거울은 거울의 잔인한 진실을 담아 대답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 분명 그는 더 이상 코커 스파니엘이 아니었다. (129)

그리고 이 진실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플러쉬와 바렛 브라우닝은 그렇게 늙어 갔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였고 그는 개였다"(153). 그리고 어느 여름날, 플러쉬는 꿈속에서 또 다시 "스팬, 스팬"하고 외치는

카타지니안 병사의 외침을 듣고 깨어나 바렛 브라우닝에게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서 영원히 잠든다(153). 플러쉬의 최후에 대해 울프는 리튼 스트레치가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에서 여왕의 최후를 묘사한 것을 본뜨고 있다(*L5* 232). 스트레치는 죽음을 앞둔 여왕이 지나간 날들과 기억들을 거슬러 올라 추억하는 내면의 의식을 묘사하는 것으로 여왕의 전기를 마무리 한다(Stratchey 423-24). 이와 유사하게 울프는 죽음을 앞둔 플러쉬가 쓰리마일즈 크로스를 추억하고 더 나아가 스파니엘의 종족적 집단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토끼 사냥을 하는 사냥개 본연의 모습을 꿈꾸며 최후를 맞는다. "그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죽었다. 그게 다였다"(153).

V. 새로운 전기문학을 위하여

물론 이 같은 서술은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작가의 상상의 산물이다. 비록 그 기억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하더라도 인물의 최후에 멋진 기억의 테피스트리로 장식된 커튼을 내려 인생이라는 극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과 같은 장치인 것이다. 이는 울프가 「새로운 전기문학」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전기에 소설적 기법을 사용해 전기를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실제로 적용시킨 예이다. 물론 『플러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기"가 아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의 삶을 그의 애견 플러쉬의 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허구라고 하기는 어렵다. 만일 소설과 전기를 스펙트럼의 양 끝에 놓고, 『플러쉬』의 위치를 가늠해 본다면, 아마도 『플러쉬』는 그 양극의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서간집에서 많은 사실을 발췌하고, 실제 그녀의 애견 플러쉬의 존재를 근거로 울프는 바렛 브라우닝의 유명한 연애와 결혼 사건을 간접 조명하는 동시에 울프자신이 천착해온 전기문학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험의 장을 펼친다. 울프는 "새로운 전기문학"을 창작하려 했던 것이다. 이 새로운 전기물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라, 병약했던 한 여류시인의 애견의 전기이다. 울프의 이같은 선택은 전기물의 주제를 "이름없는 사람들"을 넘어 인간이 아닌 존재에까지 확장시켰고, 삶을 들여다보는 경험의 창을 시각과 청각을 넘

어 후각에 까지 넓혀 주었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주인공의 외적인 활동이 아닌 내면의 의식을 통해 “인물”(personality)을 전달하기 위해 개인의 의식을 집단 무의식에 새겨진 종의 집단적 기억으로까지 확장시킨다.

집단적 기억은 앞서 인용한 「현재 세대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가」에서 울프가 언급하는 당시 현대작가들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개인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믿음이 사라진 현대작가들에게 가능한 대체물로 울프는 종(species)이 공유하는 집단적 과거의 기억에서 찾으려 했다. 이와 유사한 실험은 여러 모더니스트 작가들에게서 발견되는데, 제임스 조이스나 시인 T. S. 엘리엇의 경우 신화에서 그 공통의 기억을 찾았던 것이 그 예이다. 울프는 『파도』에서 각 장에 서시(prelude)를 붙이고, 각 인물마다 특유의 기억을 문화적 집단기억에서 끌어오는 방식을 사용했다. 『막간』에서는 영국 땅에 문명이 들어서기 전, 공룡이 거닐던 늪이었던 태고의 기억을 계속해서 울려 나오게 하는 등 울프 작품에서 이와 유사한 장치들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플러쉬』의 경우, 코커 스파니엘의 집단기억으로 상정된 드넓은 스페인 벌판에서 토끼를 쫓던 기억을 바탕으로 그 위에 플러쉬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즉, 역사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서의 종족의 특성 위에 개별성이 더해져 전기문학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특성, 즉 “인물”이 형성된다는 아이디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울프의 전기문학론은 집단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합쳐지고, 사실과 허구가 어우러진다. 그리고 울프는 이 과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의미있는 진실을 담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문학으로서의 전기를 지향했다. 이후 「전기문학예술」과 로저 프라이(Roger Fry)의 전기를 쓰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사이의 괴리에 고심하기는 하지만 울프가 지향한 전기문학은 소설에서와 같이 인간의 삶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올란도』와 더불어 『플러쉬』에서 울프는 “장난” 이나 “작가의 휴가”를 빙자해 가장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장난”이고 “휴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완결성을 추구했던 작품들에서보다 자신의 상상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적용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성이나 문체적 실험에 있어 울프의 여타 작품에 비해 가벼워 보이지만, 그 가벼움이 울프에게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런던의 규율과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햇살 가득한 이탈리아가 플러쉬와 바렛 브라우닝을 자유롭게 했듯이. 이렇듯 작가의 휴식

을 빙자해 탄생한 『플러쉬』는, 리튼 스트레치의 『뛰어난 빅토리아조 인물들』이 전기문학사의 한 획을 그었듯이, 한 뛰어난 빅토리아조의 개의 생애를 그려내는 동시에 애견의 눈을 통해 역사적 인물의 삶을 조명해보는 실험으로서 전기문학의 지평을 넓히려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서울대)

인용문헌

손현주. 「초상화와 전기문학: 버지니아 울프의 전기문학과 시각예술」. 『제임스 조이스 저널』 20.1 (2014): 107-32.

Atkinson, Juliette. *Victorian Biography Reconsidered*. Oxford: Oxford UP, 2010.

Benton, Michael. *Literary Biography: An Introduction*. Chichester: Wiley-Blackwell, 2009.

Caughie, Pamela. *Virginia Woolf and Postmodernism: Literature in Quest and Question of Itself*. Chicago: U of Illinois P, 1991.

Castle, Gregory. *Reading the Modernist Buildungsroman*. Gainsville, FL: U of Florida P, 2008.

Chamberlain, John. "Books of the Times." *New York Times*. 5 Oct. 1933. Web. 15 May 2015. <https://www.nytimes.com/books/00/12/17/specials/woolf-flush.html/>

Dubino, Jeanne. "Evolution, History, and *Flush*; or The Origin of Spaniels." *Virginia Woolf and the Natural World: Selected Papers of the Twentie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ginia Woolf*. Ed. Kristin Czarnecki and Carrie Rohman. Clemson: Clemson U Digital P, 2011. 143-56.

Gualtieri, Elena. "The Impossible Art: Virginia woolf on Modern Biography." *Cambridge Quarterly* 29 (2000): 329-61.

Herman, David. "Modernist Life Writing and Nonhuman Lives: Ecologies of Experience in Virginia Woolf's Flush." *MFS* 59.3 (Fall 2013): 547-68.

Hussey, Mark. "*Flush*, A Biography (1933)." *Virginia Woolf A to Z*. Oxford: Oxford UP, 1996.

Ittner, Jutta. "Part Spaniel, Part Canine Puzzle: Anthropomorphism in Woolf's *Flush* and Auster's *Timbuktu*." *Mosaic: A Journal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iterature* 39.4 (2006): 181-96.

Lee, Hermione. *Biograph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P, 2009.

Lee, Sidney. *Principles of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P, 1911.

Marcus, Laura. *Auto/Biographical Discourses: Theory, Criticism, Practice*. Manchester: Manchester UP, 1994.

_____. *Virginia Woolf*. Plymouth: Northcole House, 1997.

Monk, Ray. "This Fictitious Life: Virginia Woolf on Biography, Reality, and Character." *Philosophy and Literature* 31.1 (2007): 1-40.

Silver, Brenda R. 1983. *Virginia Woolf's Reading Notebooks*. Princeton: Princeton UP, 1983.

Smith, Craig. "Across the Widest Gulf: Nonhuman Subjectivity in Virginia Woolf's *Flush*." *Twentieth-Century Literature* 48.3 (2002): 348-61.

Snaith, Anna. "Of Fanciers, Footnotes, and Fascism: Virginia Woolf's *Flush*." *MFS* 48.3 (Fall 2002): 614-36.

Strachey, Lytton. 1918. *Eminent Victorians*. New York: Oxford, 2003.

_____. *Queen Victoria*. 1921. Universal Digital Library. 1921. Web. 15 May 2015. <https://archive.org/details/queenvictoria002839mbp/>

Woolf, Virginia. "The Lives of the Obscure." *Collected Essays*. Vol. 4. London: Chatto & Windus, 1966-67. 116-32.

_____. "The New Biography" (1927). *Collected Essays*. Vol. 4. London: Chatto & Windus, 1966-67. 229-35.

_____. "The Art of Biography" (1939). *Collected Essays*. Vol. 4. London: Chatto & Windus, 1966-67. 221-28.

_____. "Two Women: Emily Davis and Lady Augusta Stanley." *Collected Essays*. Vol. 4. London: Chatto & Windus, 1966-67. 61-66.

_____. *Virginia Woolf, Moments of Being: Autobiographical Writings*. Ed. Jeanne Schulkind with an Introduction by Hermione Lee. London: Pimlico, 1976.

_____. 1927. *To the Lighthouse*. London: Hogarth, 1977.

_____. *The Letters of Virginia Woolf*. Eds. Nigel Nicolson and Joanne Trautmann. Vol. 5. London: Hogarth, 1979.

_____. *The Diary of Virginia Woolf*. 5 Vols. Ed. & Intro. Ann Olivier Bell. London: Hogarth, 1977-84.

_____. *Virginia Woolf: The Complete Shorter Fiction*. Ed. Susan Dick. London: Triad Grafton Books, 1991.

_____. *Flush*. Ed. Margaret Forster. London: Hogarth Press, 1991.

Wylie, Dan. “The Anthropomorphic Ethic: Fiction and the Animal Mind in Virginia Woolf’s *Flush* and Barbara Gowdy’s *The White Bone*.” *ISLE: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iterature and Environment* 9.2 (2002): 115-31.

Abstract

Flush, a Biography of an Eminent Dog

Heonjoo Sohn

Flush is a biography of a cocker spaniel owned by Victorian poetess Elizabeth Barrett Browning. It has been treated as an underdog in Woolf oeuvre. Although it was the bestseller among her books when published, nobody has taken it seriously until the recent critical attentions to it in terms of ecocriticism, eco-feminism, or animal right movement along with the issue of biography. I would like to read *Flush* in the light of Woolf's idea, a "new biography." In her essay "New Biography" Woolf explores possibilities of a new direction biography as a genre could take, considering Lytton Strachey's *The Eminent Victorians* and Harold Nicolson's *Some People* as possible candidates.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very reason *Flush* has been neglected in scholarly criticism is what makes the work truly subversive and experimental. That is, it was written as a "joke" on Lytton Strachey and his ground-breaking work, *The Eminent Victorians* after the exhaustion of completing *The Waves*. It seems possible that such light-heartedness and freedom a "joke" endows helped Woolf experiment with her new ideas with less critical self-consciousness and restraints.

Woolf purported an idea of writing "lives of the obscure" that not only the prominent and the eminent but also the obscure men and women deserve a written life in their own rights. In *Flush*, by writing a biography of a coker spaniel, Woolf seems to go one step further to suggest that even the non-human may deserve one. She is also trying to construct a world experienced through the sense of smell instead of sight and sound, which is the usual sensual experiences employed in literary description. Thus, twisting the homocentric perspective of life, Woolf subverts the generic conventions of biography with the hope of finding a "new biography."

■ Key words : Virginia Woolf, Biography, Flush, New Biography, Lives of the Obscure, Dog's Life
(버지니아 울프, 전기문학, 플러쉬, 새로운 전기문학,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 개의 생애)

논문접수: 2015년 5월 25일
논문심사: 2015년 5월 25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5일